

평가되지 않는 숫자들

제8회 지방선거에서 여성, 진보, 청년이 거둔 성적 분석

김주영 / 2022.06.10.

목차

1. 잠시 되돌아보기

2. 이번 지방선거

- 여성: 공천 비율, 당선 비율, 정당 비율, 주요 후보자들의 득표 상황 주1
- 진보: 정당별 상황, 지역별 상황
- 청년 주2

3. 다시 되돌아보기

※ 주1: 모든 성별은 부득이하게 법적 성별을 기준으로 합니다.

※ 주2: 청년정치 관련 분석 자료(글과 사진)는 모두 뉴웨이즈 뉴스레터의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.

1. 잠시 되돌아보기

팀서울 선거(2021) 때 제가 내렸던 결론 - 원인

해석을 해보려고 했는데요. 투표구별로 1000표 정도 되는데, 이게 어느 아파트 단지는 표가 더 나왔고 어찌고 해야 하는 거라서 통계적으로 뭔가 할 수가 없었어요. **평가 불가능한 득표**

여대 주변이나 월세가 매우 싼 고시촌 같은 곳에서 진보 5명(신지혜, 김진아, 송명숙, 오태양, 신지예) 표가 많이 나오기는 했는데요. 그거 외에 이 투표구가 진보 표를 많이 준다 하고 새롭게 밝혀진 곳은 드물어 보여요. **뻔한 결과**

신지혜와 김진아가 득표 패턴이 비슷했어요.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임을 전면에 내걸고 선거를 했느냐가 20대 여성 표를 많이 받는 계기가 된 거지, 신지혜와 김진아, 그리고 이들의 당에 대해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찍어준 건 아닌 것 같아요. 우리가 신지혜를 이긴 투표구도 있고, 김진아를 이긴 투표구도 있고. 둘 다 이긴 투표구도 있고. 신지혜가 김진아를 이긴 투표구도 있어요. **페미니스트 표의 분산, 페미니스트 후보들의 차별점 없음**

송명숙은 진보당이 신경 쓴 특정 투표구 몇 개에서만 잘 받았어요. 오태양은 그냥 어디서든 잘 못 받았어요.

~~관외사전과 관내사전에서 득표율 차이가 컸어요. 관외사전만 높아요. 관내사전은 오히려 낮아요.~~

사전투표율이 높으면 득표율이 낮아요. 이번에 우리에게 투표한 사람들은 선거일투표를 했고, 고민 많이 했다는 얘기에요. 우리와 다른 진보 후보들 중에 누구 찍을까 하는 고민도 많이 한 결과로 보이고요. 투표장에 나올까 말까 하는 고민이어서 결국 안 나온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요. **페미니즘 선거의 한계**

팀서울 선거(2021) 때 제가 내렸던 결론 - 결과

- 다음 선거에서는 신지예를 찍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 말고 신지예를 찍어야만 한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야 하고요. **차별점 만들기**
- 그리고 어차피 오세훈이 되는 판이니까 귀찮다 신지예 찍으러 나갈 필요 없다 하고 안 나오는 사람들도 끌어내야 해요. **집토끼라도 잡기**

※ 뒤에서 무엇이 달라졌나 살펴봅시다.

2. 이번 지방선거

관점 1: 여성 - 공천 비율

- 정의당: 여 93(52%) 남 85(48%) 전체 178
 - 광역단체장 7 기초단체장 9
 - 광역의원 지역구 11 광역의원 비례 19
 - 기초의원 지역구 105 기초의원 비례 27
- 진보당: 여 110(62%) 남 68(38%) 전체 178
 - 광역단체장 3 기초단체장 2
 - 광역의원 지역구 21 광역의원 비례 24
 - 기초의원 지역구 100 기초의원 비례 28
- 청주페미니스트네트워크: 여 3(100%) 전체 3
- 더불어민주당: 여 32% / 국민의힘: 여 26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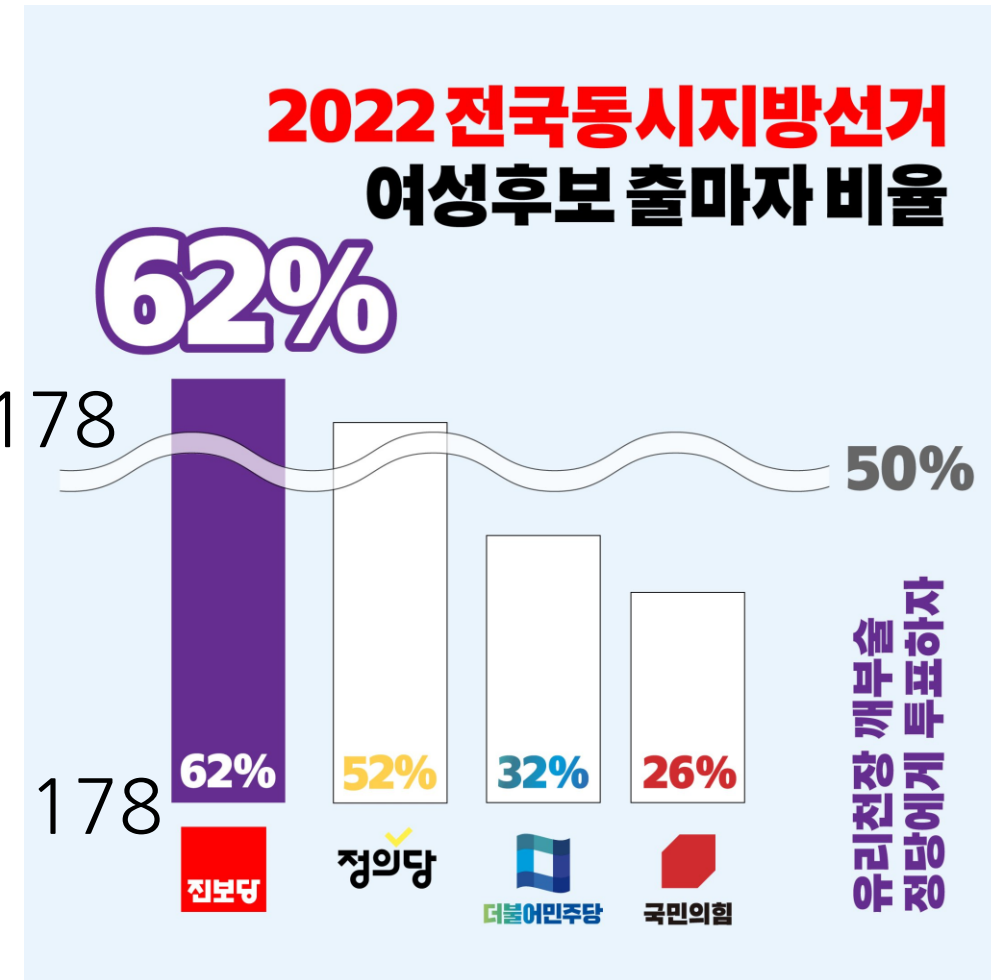


사진 출처: 진보당 트위터

관점 1: 여성 - 당선 비율

- 정의당: 여 5(56%) 남 4(44%) 전체 9
 - 광역의원 2 기초의원 7
 - 광역의원 비례: 여여
 - 기초의원 지역구: 남남여남남여
 - 기초의원 비례: 여
- 진보당: 여 13(62%) 남 8(38%) 전체 21
 - 기초단체장 1 광역의원 3 기초의원 17
 - 기초단체장: 남
 - 광역의원 지역구: 여여남
 - 기초의원 지역구: 여여여여남남여여여남여여남여남남여

관점 1: 여성 - 정당 비율

- 지방선거에서의 제1진보정당이 진보당으로 교체됨
 - 진보당 또한 내부에 성폭력 사건이 없는 정당은 아님(노동자연대, 한국진보연대)
 - 그러나 정의당의 사건들처럼 대중들에게 크게 드러나지 않았음
- 여성 공천 비율과 여성 당선 비율이 일치하는 현상 발견
 - 여성 공천 확대의 근거로 사용 가능
- 복수출마형 페미니스트 선거연대의 등장
 - 팀서울(2021)의 경우, 결국 후보자와 선거구는 하나였음
 - 청주페미니스트네트워크(2022)의 경우, 노동당 1명, 무소속 2명이 출마
 - 선관위: 선거구가 겹치지 않으면 무소속(청주페미니스트네트워크) 표기 허용

관점 2: 진보 - 주요 후보자들의 득표 상황

- 청주페미니스트네트워크
 - 충북 청주시의회 청주시마선거구(서원구) 노동당 유진영 434표(1.64%)
 - 충북 청주시의회 청주시아선거구(흥덕구) 무소속 현슬기 606표(2.54%)
 - 충북 청주시의회 청주시차선거구(흥덕구) 무소속 김현정 600표(2.33%)
 - 일단 선전했음(축하드립니다, 고맙습니다, 응원합니다)
 - 정당 공천이 득표율이 떨어진 원인이 될 수 있는가? 그냥 선거구의 특성인가?
 - 선거 전략은 적절했는가?
 - 더 많은 단위에서 전국적인 지원을 해 줬다면 더 많은 득표를 할 수 있었을까?
 - 페미니즘당은 현슬기, 김현정 후보에게 주말에 각각 3인의 선거사무원(유세)을 지원함
 - 유세 지원과 재정 지원은 얼마나 더 필요했을까?
 - 행정 지원(선거 경력이 있는 활동가들의 선거 실무 지원 및 자문)이 있었다면 도움이 되었을까?
 - 청주페미니스트네트워크의 선거를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단위들이 있었을까?

관점 2: 진보 - 정당별 상황(당선자 통계)

- 광역단체장: 정의당 0 / 진보당 0
- 기초단체장: 정의당 0 / 진보당 1
 - 진보당: 울산동구
- 광역의원 지역구: 정의당 0 / 진보당 3
 - 진보당: 전북 전남 전남
- 광역의원 비례: 정의당 2 / 진보당 0
 - 정의당: 전북 전남

관점 2: 진보 - 정당별 상황(당선자 통계)

- 기초의원 지역구: 정의당 6 / 진보당 17
 - 정의당: 인천동구 강원춘천시 광주광산구 전북전주시 전남목포시 전남목포시
 - 진보당: 서울노원구 경기수원시 울산동구 울산북구 충북옥천군
광주광산구 광주광산구 광주광산구 광주동구 광주서구 광주북구
전북익산시 전남순천시 전남순천시 전남나주시 전남광양시 전남화순군
- 기초의원 비례: 정의당 1 / 진보당 0
 - 정의당: 전남목포시

관점 2: 진보 - 정당별 상황(진보당)

- 지방선거에서의 제1진보정당이 진보당으로 교체됨
 - 진보당이 민주노총의 지원을 많이 따냄(양경수 위원장 당선 이후)
 - 광역단체장(울산동구청장) 당선은 예견된 일이었음
 - 정의당이 따내지 못한 광역의원 지역구를 따냄(전북 1, 전남 2 - 전농 조직)
 - 서울노원구의원, 경기수원시의원(3선)을 따냄
 - 수원시의원의 경우, 통합진보당 해산 극복의 신호가 되는 사례임
 - 광역/기초의원 비례는 따내지 못함

관점 2: 진보 - 정당별 상황(진보당)

연도	선거 종류	선거구	소속 정당	득표수 (득표율)	당선 여부	비고
2006	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	경기 수원시의회 비례대표	민주노동당	51,961 (15.04%)	당선 (1번)	초선
2010	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	경기 수원시의회 사선거구		7,652 (26.71%)	낙선 (3위)	
2014	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		통합진보당	8,009 (21.90%)	낙선 (4위)	
2014	201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	경기 수원시 을		3,049 (4.86%)	낙선 (3위)	
2018	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	경기 수원시의회 마선거구	민중당	10,028 (32.57%)	당선 (2위)	재선
2022	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		진보당	9,052 (17.54%)	당선 (3위)	3선

사진 출처: 나무위키

전남 나주시 나선거구 구·시·군의 회의원 개표현황

전남 나주시 나선거구에서는 나주시의회의원 3명을
선출합니다.



1위
황광민 기호 4-나
진보당

21.05%
1,826표



2위
김정숙 기호 1-가
더불어민주당

20.52%
1,780표



3위
김성보 기호 4-가
진보당

13.71%
1,189표



4위
황정헌 기호 7
무소속

13.49%
1,170표



5위
김관용 기호 1-다
더불어민주당

12.47%
1,082표

사진 출처: 네이버

관점 2: 진보 - 정당별 상황(녹색당)

2022 지방선거 결과

**2022 지방선거,
녹색당을 지지해주신 여러분
모두 고맙습니다.**

기후선거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실현하지 못했습니다.
그러나 새롭게 출발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지지와 용기를 얻었습니다.
기후위기 현장에서 다시 뵙겠습니다.

녹색당
대안의 숲, 전환의 씨앗



부순정
제주도지사 후보
5,750표 1.94%



이정옥
경남도의원 후보
1,936표 5.51%



허승규
안동시의원 후보
1,346표 18.00%



박고형준
광주 남구의원 후보
1,098표 5.17%



이슬
서울 마포구의원 후보
1,156표 8.32%



박제민
서울 용산구의원 후보
1,369표 5.02%



김유리
서울 은평구의원 후보
1,064표 4.26%



장정희
대구 동구의원 후보
773표 2.51%



임준연
전북 진안군의원 후보
156표 1.60%

녹색당을 선택한 서울시민들 기후위기에 맞서 우리의 삶을 돌보자는 사람들	14,689표 0.33%
녹색당을 선택한 경기도민들 소유보다 존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	13,075표 0.22%
녹색당을 선택한 대전시민들 동네를 바꾸는 선택을 한 사람들	2,205표 0.36%
녹색당을 선택한 경남도민들 불평등을 넘어서는 시민의 정치를 바라는 사람들	7,237표 0.5%
녹색당을 선택한 제주도민들 제주도의회를 바꿀 청년 도의원을 원하는 사람들	8,381표 2.83%
녹색당을 선택한 대구시민들 생명을 우선하는 정치를 원하는 사람들	2,768표 0.31%
녹색당을 선택한 충남도민들 기후변화 막고 살기 좋은 충남을 꿈꾸는 사람들	2,350표 0.26%

관점 2: 진보 - 정당별 상황(정의당)

- 지방선거에서의 제1진보정당 자리를 내줌
 - 수도권에서 광역비례 한두 석은 건지겠지 하는 기대가 망함
 - 선거 전략 부재: 정의당 선거 현수막은 주로 “우리 동네 구의원 5등까지 당선됩니다”였음
 - 공중전의 실패
 - 풀뿌리 정치를 이길 수 없음이 입증되었다는 의견이 있음
 - 반대로, 정치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성폭력 사건과 노동의제 실종이 문제였다는 의견이 있음
 - 그런데 노원주민대회 정도는 되어야 수도권에서 기초의원을 따낸다는 것은 꽤나 절망적임
 -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득표율도 몹시 처참함
 - 선거 전략 부재: 경기도지사 후보 황순식 현수막 “이대로는 다죽는다 함께살자 그린경기”
 - 공중전의 실패
 - 풀뿌리 정치를 이길 수 없음이 입증되었다는 의견이 있음
 - 반대로, 정치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기후위기만 내세운 것이 문제였다는 의견이 있음

관점 2: 진보 - 정당별 상황(노동당 / 미래당)

- 이미 궤멸한 조직으로 선거를 치룬 결과, 선거 결과에서도 궤멸함
 - ※ 청주페미니스트네트워크 선거연대에 참여한 노동당 후보는 예외입니다.
 - ※ 다소 불성실한 분석일 수 있으나,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.
 - ※ 기본소득당도 비슷한데, 진보정당으로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.

관점 2: 진보 - 지역별 상황

- 서울: 정의당의 “수도권중심주의-중산층주의적 진보정치” 실패
 - 정의당의 서울시의원 비례 전략이 폐기되어야 하는 계기
 - 정의당의 기후위기-페미니즘 선거 전략이 폐기되어야 하는 계기
 - 진보당의 노원구의원 나선거구(공릉동) 최나영 후보 당선의 시사점
 -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정도는 되어야 수도권 지역구 당선이 가능한가?
 - 노원구 세금 페이백(남은 세금으로 노원기본소득) 정책이 진보적인 정책인가?
 - 노원주민대회의 성과 전체를 진보당이 지역정치를 잘 했다고 말해도 되는가?
 - 노원주민대회는 과연 진보당원이 아니라 노원구민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는가?
 -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의 경우, 경비원 표를 얻을 수는 있었을 것임
 - 그러나 이들이 주민등록상 노원구민인가?
 -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은 과연 숫자로 얼마나 되는가?

관점 2: 진보 - 지역별 상황

- 경기: 정의당의 “수도권중심주의-중산층주의적 진보정치” 실패
 - 정의당의 경기도의원 비례 전략이 폐기되어야 하는 계기
 - 정의당의 기후위기-페미니즘 선거 전략이 폐기되어야 하는 계기
 - 진보당의 수원시의원 윤경선 후보 3선의 시사점
 - 후보의 개인기인가, 아니면 진보당 경기도당의 역량인가? (의정활동 평가가 좋았음)
 - 수원시의원 비례 당선 - 지역구 낙선 3회 - 지역구 당선 2회인데 어떻게 버텼는가?
 - 직전에는 민중당으로 당선됐는데, 통합진보당의 이미지를 어떻게 극복했는가?
 - 통합진보당의 이미지가 별로 부정적이지 않다면, 파주시의원은 왜 탈환하지 못했는가?

관점 2: 진보 - 지역별 상황

- 인천: 정의당의 “인물중심적 진보정치” 실패
 - 이정미 전 대표의 3.17% 득표
 - 이것은 신지예의 서대문구갑 국회의원선거 득표율과 비슷한 수준임
 - 지역구인 연수구 5.60% 득표를 감안하면 나머지 지역의 평균은 2%대임
- 울산: 원래 진보당이 정의당보다 강세인 지역임
 - 그러나 마찬가지로 울산이 강세인 노동당이 꺾여버린 것은 분명함
 - 진보당은 어떻게 울산에서 독주할 수 있게 되었나?
 - 울산동구청장 김종훈 후보의 경우 울산시의원 - 동구청장 - 울산동구 국회의원 - 동구청장인데, 재선 또한 개인기인가? 민주노총이 진보당을 밀어준 것인가?
아니면 지역정치 때문인가? 복합적인가?
- 호남: 진보당의 승리는 정말로 전농(농민) 표였나?

관점 2: 진보 - 지역별 상황

- 충청: 청주페미니스트네트워크의 등장은 우연인가?
 - 공천에 의하지 않은 복수출마형 무소속 선거연대 자체가 처음임
 - 팀서울 부시장들이 모두 동시에 구청장 선거를 했다면 어땠을까? 주1
 - 구청장 선거운동은 서울시장 선거운동으로 때우기로 하고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?
녹색당도 예전에 비례 알리려고 지역구 공천하고, 지역구 밖에서 선거운동 하지 않았나?
 - 그런데 어떻게 청주에서?
 - 정말로 지역의 성폭력 사건에 공동대응했다는 것만으로 그 정도의 동력이 나오는가?
 - 그렇다면, 다른 지역에서는 왜 그런 적이 없는가?

※ 주1: 팀서울 관련 아이디어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상상입니다.

관점 2: 진보 - 지역별 상황

- 경상: 녹색당 허승규는 언제 당선될 수 있을까?
 - 고향 안동에서 2016년부터 지역정치 시작
 - 제7회 지선(2018) 안동시의회 마선거구 16.5% - 4위 (2인 선거구)
 - 안동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
 - 안동청년공감네트워크 등의 지역 시민단체 창립
 - 제8회 지선(2022) 안동시의회 마선거구 18.0% - 3위 (2인 선거구)
 - 국민의힘(2-가) 24.59% - 무소속(6) 22.40% - 녹색당(4) 18.00% (2위와 329표차)
 - 이후 무소속(5) - 더불어민주당(1) - 국민의힘(2-나)

관점 3: 청년

제8회 지선, 젊치인(만 39세 이하) 당선자 비율 10%로 증가

2018년, 2022년 지방선거 당선자 중
만 39세 이하 젊치인의 수

238 명



201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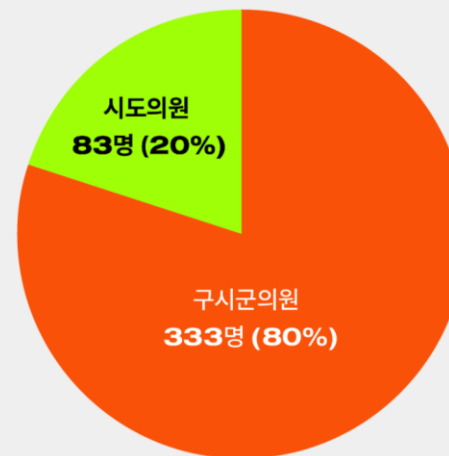
416 명



2022

1.7배 증가

2022년 지방선거
젊치인 당선자의 선출 단위



총 416명

전체 젊치인 당선자에서
뉴웨이즈 선수의 비율

10%

기초의원 젊치인 당선자에서
뉴웨이즈 선수의 비율

11%

관점 3: 청년

- 뉴웨이즈 선수들 다수 당선, 뉴웨이즈 발굴 후보 2명 당선!
 - 뉴웨이즈에 등록한 선수들은 예비 선수 간의 커뮤니티, 젊치인을 위한 피드백 세션과 전문가 강연, 지역구 유권자와의 연결을 지원 받았습니다.
 - 뉴웨이즈가 후보를 발굴해 정당에 연결, 당선된 사례가 생겼어요.
 - 젊치인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한 2명의 선수를 더불어민주당, 국민의힘에 연결했어요.
 - 두 후보 모두 당선됐습니다.
- 혹시 이걸 뉴웨이즈 임팩트?
 - 2022년 선거에서는 지난 선거에 비해 전체 후보 수가 줄었습니다.
 - 딱 하나의 선출 단위에서만 젊치인 후보의 수가 늘었습니다.
뉴웨이즈가 가장 집중했던 기초의원 선거였습니다!

관점 3: 청년

국민의힘
젊치인 당선자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

49명



201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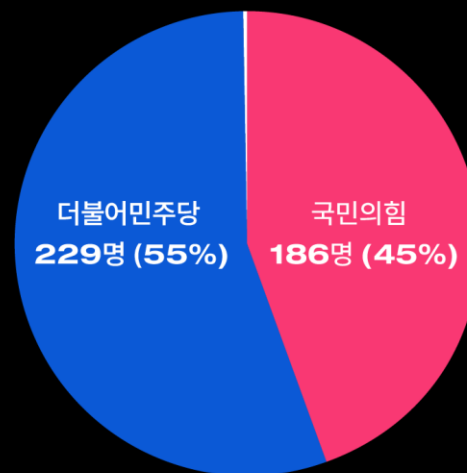
3.8배 증가

186명



2022

더불어민주당
가장 많은 젊치인 당선자를 배출



2022년 지방선거
젊치인 당선자의 소속 정당

2018년 젊치인 당선자에서
더불어민주당의 비율

73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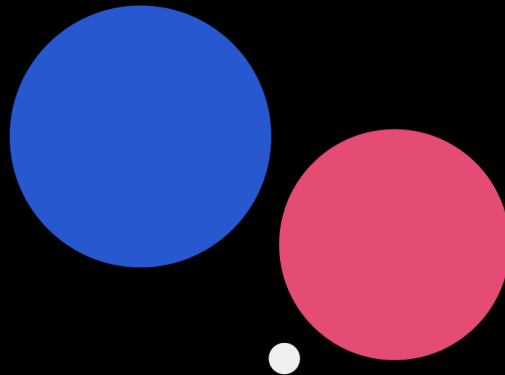
2022년 젊치인 당선자에서
더불어민주당의 비율

55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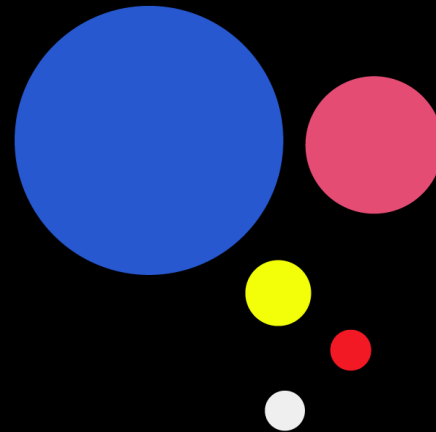
관점 3: 청년

군소정당과 무소속
정당 다양성이 낮아졌어요

2022년 지방선거
젊어선 당선자의 소속 정당



2018년 지방선거
젊어선 당선자의 소속 정당



관점 3: 청년

- 국민의힘: 186명 중에서 46명은 광역의원
 - 모든 정당 중에 가장 많은 광역의원 젊치인을 당선시켰어요. 주1
- 군소정당, 무소속 후보에게 어려운 선거였어요
 - 2018년에는 군소 정당과 무소속 젊치인 당선자가 16명이었어요. 이번 선거에서는 단 1명에 불과해요.
 - 정의당과 진보당은 이번 선거에서 젊치인(만 39세 이하)을 배출하지 못했어요.
 - 중대선거구제가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시행되는 데 그쳤어요.
 - 기존의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관행도 여전했어요.

※ 주1: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선거여서 그랬을 수 있습니다.

3. 다시 되돌아보기

그래서 팀서울 선거(2021)는 극복되었는가?

- 평가 불가능한 득표
 - 이제 평가해볼만 한 수준이 되었음
- 뻔한 결과
 - 페미니스트 정치세력화: 이번에도 페미니즘 선거는 진보 강세 지역에서 강했음
 - 여성 정치세력화 관점
 - 진보정당 한정으로 여성 공천과 당선 확대가 있었음
 -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경우 역행했음

그래서 팀서울 선거(2021)는 극복되었는가?

- 페미니스트 표의 분산, 페미니스트 후보들의 차별점 없음
 - 페미니즘을 전면에 내건 후보들이 줄어들어서 논의 불가
 - 청주페미니스트네트워크의 경우 지역정치 부족으로 인해 득표율이 아쉬움
- 페미니즘 선거의 한계
 - 청주페미니스트네트워크의 경우 이런 선거판에서도 이들에게 투표하려고 투표장에 사람들을 나름대로 동원하는 데에 성공했음
 - 선거판이 작년보다 더욱 환멸나서 오히려 집결된 것인가?
 - 공중전 관점에서, 이준석 등의 안티페미니즘이 더 큰 권력을 가져서 오히려 집결된 것인가?
 - 청주페미니스트네트워크가 선거운동을 잘 한 것인가?
 - 국회의원 선거보다 군소 후보들에게 후한 기초의원 선거의 표심의 효과는 어디까지인가?
 - 여기서 진보정당들은 광역의원 비례 득표율을 봤을 때 실패함

그래서 팀서울 선거(2021)는 극복되었는가?

- 차별점 만들기

- 진보정당 공천이 오히려 차별점을 줄이는 것 아닐까?
 - 청주페미니스트네트워크의 지역구 득표율은 진보정당의 지역구 득표율보다 높음
 - 진보정당의 비례 득표율보다는 몫시 높음
- 페미니즘만 내세우는 것이 여전히 차별점이 될 수 있을까?
 - 정의당은 기후위기-페미니즘 선거로 실패했는데, 결국에는 적록보라+@ 연대가 필요한가?

- 집토끼라도 잡기

- 여전히 페미니스트 표는 집토끼라고 부르기에 너무 적음
- 거대 양당 중심 지역정치의 균열이 엿보였으므로, 집토끼에 연연할 필요 없음
 - 그러나 총선에서는 사람들이 도로 거대 양당에 투표하게 되지 않을까?
 - 그걸 예방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?

Q & A